

대한민국이 과연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한 인 규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36년을 지나오는 동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수백 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비록 나라는 양분되어 오늘까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1948년에 독립정부를 출범시킨 우리 대한민국은 승승장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국가 발전의 기운은 북한이 유발한 그 처참한 6·25전쟁도 가로막지를 못 했다. 그런 나머지 우리는 해묵은 식량난과 가난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국토를 뒤덮은 고속도로망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가운데 드디어 우리나라 구석구석은 1일 생활권을 이루게 되었다. 산업이 발전하고 교역량이 늘어나서 어느덧 우리나라는 세계 7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의健儿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8회 연속 금메달을 10개 이상을 획득하여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지도 30년이 넘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한 선진국이 되었다. 말하자면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가 5천만 명에 이르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하였고, UN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도 활약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실로 대견스러운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우글거리는 도적과 살인범과 사기꾼과 성범죄자들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 2012년 4월 11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집에서 30대 청년이 투표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어서 그의 아버지가 “너 투표하러 안 가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도둑놈을 찍을까요? 빨갱이를 찍을까요?” 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만치 부정 비리가 많고 중북 좌파세력이 많아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나라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 국력이 부강한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못사는 이웃나라를 도우며 사는 일등 국민이 될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있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 다음에서 열거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우리의 결함을 수정·보완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일은 결코 돈이

드는 일은 아니고 도덕적 각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해 두고 싶다.

2. 초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분발과 각성을 요하는 과제들

1) 우리는 모두 정직하고 깨끗해야 한다

일찍이 요즈음처럼 도하 언론매체에 공직자들과, 정치인들 특히 최고 권력층 친인척들의 부정과 비리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때가 없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과 최측근 인사들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어 줄줄이 묶여 들어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공천 비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터졌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이러한 권력형 비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초일류 선진국에 이를 수 없다. 항간에는 세금이 줄줄 샌다는 말도 들린다. 공무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올곧게 추진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를 먼저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여기다가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쏟아내는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한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표”가 되는 일이면 일단 공약을 하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모두 우리의 정치 선진화와 국가경쟁을 흐트러 놓게 된다. 최근에는 승패를 조작하는 운동선수가 더러 있다고 한다. 페어플레이를 중시하는 스포츠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러면 국가가 법으로 이런 부정과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그 보다는 우리가 도덕성과 정직성을 먼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는 평범한 삶의 철학이 우리의 생활 현장에 속히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애국심 결핍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먼저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행복한 나라도 만들고 초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2) 모든 국민이 책임감이 강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은 정확하고 완벽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수출하는 공산품이 외국에서 클레임에 걸리는 비중은 지난 날 10%대에서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5%대로 감소했다고 한다.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지는 하나 제품생산자가 책임감이 강하여 좀 더 정확하게 마무리를 했더라면 클레임률은 0%로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은 이렇듯 아직은 마무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결함은 예컨대 저서를 출판할 때는 많은 오자와 탈자를 남겨 책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된다. 최근에 KTX라는 고속철 기차가 평지나 터널 속을 가리지 않고 아무데서나 고장을 일으켜 섬으로써 승객을 불안에 떨

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매체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KTX 직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정비를 하고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놓임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일은 우리 국가의 더 이상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최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자세가 바로 되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본질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운전하는 자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한 줄서기”를 잘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길거리 아무데서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일 같은 것도 즉시 버려야 할 나쁜 버릇이다. 언젠가 삼성동 COEX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탄 일이 있다. 나이가 많은 그 택시 기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약하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었다. 그가 운전하고 있는 그 길 중앙에 있는 분리대 풀밭에는 지나가는 운전기사나 승객들이 버린 꽂초로 풀밭이 아니라 꽂초밭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도가 이 지경이고 보면 지방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원시인의 그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고 기초질서를 준수 실천하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삶을 꾸려 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 헤아릴 길이 없다.

3) 대학이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 대학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교양서적도 그리 많이 읽는 것 같지 않다. 지난 날 관계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량은 조사한 OECD 32개국 중 꼴찌라고 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고 놀면서 공부하지 않는다. 게다가 학비조달의 방편으로 과외 공부 지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니 도무지 전공과목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 각국의 대학생들의 학습량 경주를 시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금메달은커녕 분명히 꼴찌를 할 것인 즉 이렇게 되고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국제 경쟁력은 어떻게 향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일류 선진국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

교수들은 과연 열심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가? 대학을 아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모두 고개를 좌우로 저어댈 것이 분명하다. 강의와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차치하고 적지 않은 일부 정치교수들은 대학을 정치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수들 가운데는 항상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교수직은 정치를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 외국 유명 명문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망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교수와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만들어 내는 이런 불 꺼진 캠퍼스를 보고 있는 한 우리는 초일류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대학은 상아탑이며, 진리탐구의 전당이다. 모두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 공부함으로써 우리 대학생들의 수준과 실력이 외국학생들의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면 우리는 남미 여러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하는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다.

4)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시간씩 더 일해야 잘 살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아름답다. 더욱이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하루에 한 시간씩 더 일해야 한다. 공산품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여 더 우수한 품질의 공산품을 더 값싸게 만들어서 내다 팔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살 길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고지에 이를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하나라도 더 딸 것이요, 그동안 타 본 일이 없는 노벨상도 가까운 시간 안에 타게 될 것이다. 학생도, 교수도, 노동자도, 공무원도, 정치인들도 모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우리는 10년 내에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삶의 질이 풍요로운 세계 초일류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일부 노동자들은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겠다고 단체 행동을 불사한다. 사회도 국가도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은행이 먼저 시작하더니 정부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나 모든 직장도 닷새만 일하고 이틀은 놀아야 되겠다고 야단들이다. 이런 주장을 조금만 미루어서 하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우리나라에는 또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은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다. 성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굶어 죽지 않도록 갖가지 복지 혜택을 준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욕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니 이것은 정녕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남보다 일을 더 부지런히 해서 일구어 놓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데 말이다. 이런 현상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초일류 선진국에 진입하지는 못할 것이다.

5)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

그렇잖아도 요즘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고 있다. 도하 모든 언론매체에서는 “교권이 위태롭다”느니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학생들이 예사로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친구들과 장난을 하며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기도 한다. 이때 선생님이 야단을 치든지, 지금

은 금지된 체벌을 가하든지 하면 정말 난리가 난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도 학교 복도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중학생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은 어느 교감선생이 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어느 여자 담임선생님의 경우, 기가 막힐 성희롱도 당하기가 일쑤라고 한다. 학내 왕따 현상과 학원폭력 사태는 급기야 경찰 병력을 학교에 끌어들이는 사태에 이르게 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이 이렇고 보면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의 장래가 없는데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이런 교육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교육종사자들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교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무너져 내리는 성도덕 문제도 해결하며,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이겠는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젊은 남녀가 결혼을 존중하며 이혼을 최소화하는가 하면 자녀의 출산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이 교묘하게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공권력이나 법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다. 사람이 달라져야 비로소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조국 분단의 아픔을 씻어내고 철통같은 안보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라를 걱정해 보았는가?”라고 꾸짖으셨다.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67개 성상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금껏 나라가 두 동강으로 쪼개진 유례를 세계 205개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거기다가 북한 동포들은 아직까지도 폐쇄된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집단이다. 해마다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북한은 김씨 왕조 3대 세습이라는 부끄러운 체제 하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을 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하물며 북한 땅에서 어떻게 자유와 인권이란 말을 꺼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을 자행하여 우리의 귀한 생명을 살상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 남한 땅에 이런 북한을 좋아하고 김정일과 김정은 일당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른바 ‘중북 좌파세력’이 있다는 기막힌 현실이다.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사파가 신성한 국회에까지 진출하였으니 도대체 우리의 안보개념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우리나라의 애국가도 부정하는 속칭 빨갱이들은 북한으로 가서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나라가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러한 종북 좌파도 사라져야 하고 북한과의 국방비 대결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7)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날 가난한 가운데 굶주림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남을 높이고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는 삶의 여유를 누리지 못했다. 거기다가 남이 잘되면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남이 잘되는 것을 도무지 마음 편하게 대할 줄 모르는 웅졸한 품성을 지닌 백성인지 모른다. 선진국 백성이 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민족성이 아닌가 싶다. 네거티브를 전문으로 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부터 대오각성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을 험담하고 끌어내리지 말고 거꾸로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것이라고 믿는다. 대학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주야로 노력하여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세운 동료교수가 있는 경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학과 건물을 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학술상도 제정해 주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의 성격이 이상하다 느니 독재성이 강하다느니 하면서 평가절하를 일삼는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일류 선진국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딴 대학도 있고, 국제공항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는 초라한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정말 잘난 백성들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필 줄 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도무지 남을 돕는 일을 할 줄 모른다. 미국 같은 나라가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강건하여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80%는 자원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원봉사율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기부문화는 어떠한가? 그들은 모든 국민이 살아가면서 조금씩 남을 돕기 위하여 자선냄비에 돈을 넣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부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조그만 기부를 해도 신문에 소개되는 형편이 아닌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적은 액수의 베품이라도 베푸는 자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끌어내리지 말고 밀어 올리게 되는 날, 나보다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세계 일등 국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3. 마무리하면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땀을 흘리며 노력한 끝에 이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들어서게 되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식자들 사이에는 과연 우리나라가 여기서 초일류 선진국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걱정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같이 인구는 많으나 땅덩어리가 좁고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제2의 도약을 하려면 두말할 것 없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국방, 과학, 체육 등 모든 분야가 지난날 일구어 낸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성장과 발전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를 악물고 노력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50-50클럽에도 들어서서 진정 세계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모든 백성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기초질서를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국가사회의 발전 동력이 되는 각급 교육기관이 변하고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이 노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에는 하루에 한 시간씩 더 일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을 나무라고 부지런한 사람을 추켜세우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했으니 이 나라 각급 학교의 교육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국 분단의 비극을 마감함으로써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들이 농임을 받아야 한다. 군비경쟁도 중단함으로써 더 많은 재정이 국가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우리 국민이 일등 국민이 되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일에도 앞장을 설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원로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정신적 자산을 꾸준히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하며, 모든 이웃나라들과 더불어 사는 통로를 조성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세계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면 우리는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세계 초일류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는 다시 열강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설움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나는 개인적으로 꼭 그러한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 부강하여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